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44주기 열반대재 봉행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대조사 원력 이어 정진 또 정진



천태종은 10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월원각대조사 44주기 열반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해 참석 내빈들은 헌향과 헌다, 헌화로 상월원각대조사의 원만각행을 되돌아보았다.

이날 불교종지종 총리원장 인선정사는 종단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설정스님의 추도사를 대독하였다. 대독한 추도사에서 "지금 우리 조국에는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서 화합을 위한 지혜와 인욕의 방편으로 반드시 평화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이러

한 때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지표를 세우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으로 한국불교의 모든 종단이 함께 노력하여 평화의 시대를 열고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할 것"이라며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였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열반으로 펼쳐 보이신 광도중생의 원력은 우리 250만 천태불자들의 가슴 가슴에 새로운 불국토의 열매로 맺혀 있다"며 "그 무수무량의 국토에서 일체중생이 성불하는 그 순간까지 정진 또 정진해 나아가 한다"고 당부했다.

고규장 충북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추도사를 통해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중생구제 정신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 한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설악산 오현 스님 입적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글 올려 스님의 삶을 기렸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속초 설악산 신흥사 조실인 설악무산(오현) 스님이 26일 주석처인 신흥사에서 입적했다. 승남 60년, 세수 87세.

오현 스님은 193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939년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9년 직지사에서 성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조계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속명인 '오현 스님'으로 더 잘 알려진 설악무산 스님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시조 시인으로도 유명하다. 1968년 등단한 시조 시인으로 한글 선시의 개척자로 꼽힌다.

문학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포교분야에도 큰 업적을 쌓았다. 1996년 만해스님의 유지를 알리기 위해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를 설립, 문화예술·학술 사업 등을 펼치기도 했다.

또 만해 정신 선양에 업적을 남긴 이들에게 시상하는 '만해대상'을 운영, 세계 평화와 문화교류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조집으로 '심우도', '아득한 성자' 등을 펴냈으며, 현대시조문학상과 남명문학상, 가람문학상, 한국문학상, 정치용문학상, 공초문학상 등 다수의 문

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현 스님의 입적 소식에 "막걸리 한잔 올린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스님의 삶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스님께선 서울 나들이 때 저를 한 번씩 불러 막걸릿잔을 건네주시기도 하고 시자 몰래 슬쩍슬쩍 주머니에 용돈을 찔러주시기도 했다. 물론 묵직한 '화두'도 하나씩 주셨다"면서 "언제 청와대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제는 제가 막걸리도 드리고 용돈도 한번 드려야지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됐다. '허허'하시며 흘출 떠나셨을 스님께 막걸리 한잔 올린다"고 했다.

무산 스님의 빈소는 신흥사에 마련됐으며,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업무된다.

30일 오전 10시 신흥사 영결식에 이어 강원 고성군 건봉사 연화대에서 다비식이 치러졌다.

여주 목아박물관 화재

방화 용의자 70대 남성, '사후재판소' 방화로 전소

5월 31일 오후 5시 8분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소재 목아박물관 별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여 분 만에 진압되었다.

이 불로 별관이 전소됐고, 작품 30점과 황실 유물 1점 등이 불에 탔으나, 박물관 안에 있던 보물 제1146호인 대방광불화엄경 등 보물 3점은 안전한 곳에서 보관 중이다.

박물관 방화 용의자 70대 남성은 "친일파를 용납 못한다"고 화재를 일으키고 경찰에 자수를 한 상태다. 다행히 큰 피해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잃을 뻔 했던 사건이다.

목아박물관은 1989년 우리나라 전통 목조각 및 불교미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세워졌으며, 1992년 문화관광부 제 28호 등록된 전문사립 박물관이다. 그리고 중앙 앞쪽과 좌,우로 원추형의 계단을 두어 불교의 불, 법, 승 삼보를



형상화시켰고, 전체적인 조형은 인도의 석굴사원을 모방하여 불교의 전통과 현대화의 조화를 꾀한 곳이다.

2층 유물전시실에는 보물 제1146호 대방광불화엄경이 전시되어 있으며, 3층 목조각 전시실에는 목아 박찬수관이 40여 년간 조각한 150여점의 대

표 작품들이 전시되어져 있다.

이번 불은 목아박물관 내 목조건물 '사후재판소'에 방화가 일어나면서 화재가 일어났다. 한편, 연합뉴스에 의하면 박물관측은 "친일파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밀교 전통 진법법인 "문두루" 복원

불교무형문화재 복원 이어지길

조선 초 종파 통폐합으로 명맥이 끊겼던 밀교 전통 기도법 중 하나인 문두루법(文豆婁法)을 연구해 온 밀교종단 진각종이 창교 71주년을 맞아 문두루법 복원을 앞두고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밀교종단 진각종(총리원장 회성 정사)은 5월 30일 간담회를 열고 '한국밀교문화총람' 편찬사업 일환으로 6월 14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밀교의 진호국가와 문두루법' 연구발표회를 열었다. 진각종은 10월 진각문화축제로 '문두루법 의식'을 시연한다고 밝혔다.

"문두루법"은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신라 명랑법사가 비법을 통해 재난과 외세의 침략을 물리쳤고, 민중과 국가를 수호한 밀교 작법이다.

이는 고려시대까지 행하여 졌으나, 조선 초 종파가 통폐합되면서 명맥이 끊겼다. 이에 문두루법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진각종 교육원장(덕정정사)은 "문두루법은 신라의 명랑법사에 의해 행해졌으며 외적의 침략에 맞서 이를 퇴치



하고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밀교의 진호국가 기도법으로 행해졌던 것 또한,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전승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각종 상임연구원(성제정사)은 "사천왕사가 경주에 가면 아직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터에서 어떤 밀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두루 비법을 행했더니 당의 수군 병사 50만을 태웠던 배가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가 되

든지 격파가 되든지 해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두루법의 핵심입니다."라며 문두루법은 국난 타개를 위한 항복법이라고 말했다.

진각종은 오는 10월 문두루법을 시연하고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불교속 밀교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국밀교문화총람'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국 8대 총림 하안거 결제법회 봉행

전국 총림 무술년 하안거 용맹정진 돌입



전국 8대 총림은 불기 2562년 하안거 결제법회를 30일에 봉행하였다. 결제대중들은 산문을 걸어 잠근 채 석 달간의 화두참선에 들어갔다.

덕송총림 수덕사에서는 결제대중 290여 명과 수덕사를 비롯한 해인총림 해인사 결제대중 300여 명, 영축총림 통도사 330여 명 등 전국의 주요총림에서 일제히 결제법회에 동참해 정진의지를 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덕송총림 수덕

사 문장인 설정스님은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길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무술년 하안거 결제를 맞아 수행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통해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은 이번 안거에 반드시 자기의 본분사를 해결하여 생사에 진리의 낙을 수용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안거 정진을 시작한 스님들은 5월 30일부터 8월26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외부 출입을 끊고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며 씩씩한 수행정진을 이어간다.

하안거는 불교에서 승려들이 음력 4월 보름 다음날부터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한곳에 머물면서 좌선과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안거 첫날은 여름 안거의 제도를 맺는다는 뜻에서 결하(結夏)-결제(結制)라고 하였고 안거를 마치는 것을 과하(過夏), 7월 16일 이후에 안거 제도를 푸는 것을 해하(解夏)-해제(解制)라고 하였다. 또한 안거중에 죄를 짓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파하(破夏)라고 하였다. 안거를 마친 뒤에는 안거중에 죄를 지른 일이 없었는가를 서로 묻고 답하는 자자(自恣)를 벌였는데, 이 날을 특별히 자자일(自恣日)이라고 하였다.

안거는 석가가 부처가 된 다음해부터 열반하기까지 계속되었고 그 뒤에도 불교가 전해진 모든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름과 겨울의 2회로 나누어 각각 하안거와 동안거라 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 보물 지정

문화재청 27일 공고... 대곡사 명 감로왕도 등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중 발견된 사리장엄구 유물 일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국보가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등 13건을 보물로 '이제 개국공신교서'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보물 제1991호로 지정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지난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중 심주석의 사리공과 기단부서 나온 유물로 639년(백제 무왕40)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사리봉영기와 함께 금동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은 청동합(靑銅合) 6점이

로 구성됐다.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사리내호'는 모두 동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유려하고 양감과 문양의 생동감이 뛰어나 기형(器形)의 안정성과 함께 세련된 맛이 한껏 드러나 있다.

이밖에도 감지은니법망경보살계품(보물 제1988호)-대곡사명 감로왕도(보물 제1990호)-지장시왕도(보물 제1994호) 등 불교문화재도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태조 이성계가 개국 일등공신 이세에게 내린 교서인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국보 제324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국보, 보물로 지정된 14건의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고행과 수행

오늘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원에 가고, 법당에 가면 여러 형상의 부처님들이 다양하게 모셔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각각에는 저마다의 이름도 있습니다. 과연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먼저 역사적 부처님이신 석가모니 부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삶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네팔에 속하는 카필라국이라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도시국가라는 말처럼, 도시의 개념과 국가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대략 16개 정도의 도시국가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카필라국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부처님이 지낸 시대의 도시국가에는 계급제도도 있고 세습제도도 있었습니다. 최상의 가문에서 태어난 부처님은 왕위를 세습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속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인도고전철학이라는 종교사상뿐 아니라 의학, 인문학, 논리학, 수학, 무예 등 각각각색의 분야를 심도 있게 습득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출가 전 고타마 싯타르타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부처님은 결혼을 하여 아들도 있었는데 나후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명이기도 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왕위와 가정을 포기하고 29살에 종교의 길을 걷게 되는 부처님을 보면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만도 합니다. 가정을 가진 가장이 출가를 한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도의 전반적인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기(四期) 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시기를 일컫는데, 첫번째는 ‘학습기’라고 하여 부모와 함께 살면서 교육을 받는 데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두번째는 ‘가주기’라고 하여 결혼을 한 다음 부모를 모시는 한편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시기입니다. 세번째는 ‘임서기’로서 자식이 어느 정도 크면, 가정을 떠나 출가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유랑기’로 출가를 한 후 스승을 찾아가며 수행을 하는 시기입니다. 출가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부부가 함께 출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많은 출가생들이 부처님처럼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출가 후에는 다시 사회에 나갈 수도 있었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출가한다고 해서 영원

한 출가생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가를 했다가 다시 자신이 속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당시의 흔한 생활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출가를 하며 여러 유명한 라마승들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습시다. 다양한 종교의 수행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 라마승들로 부터 받은 배움을 토대로 실천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이 처음부터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여러 종교의 스승들을 겪으며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을 해보고 또 수행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는 식으로 실천수행을 6년 정도 지속했습니다. 중국에는 고행과 수행이 같은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강에서 목욕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힘을 차려 명상을 한 후 깨달음을 얻은 당시 부처님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보살님들이, 고행이 바로 수행이고, 수행이 바로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이 고행을 겪은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후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불고불락’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 향락에 젖어 몸을 안일하게 하는 것도 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고행을 하면, 그게 바로 수행이고 고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고타마 싯타르타가 출가 후의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불공하다가 힘이 너무 들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경전과 염주를 반납하고 집으로 가버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보살님이 경전과 염주를 돌려달라고 하여 불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왜 그렇게 또 바뀌었냐고 묻자, 수행이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었지만, 그날 밤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꿈속에서 공공 언 얼음벽을 만났는데, 아무리 얼음을 깨려고 용을 써도 잘 깨지지 않았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만약 약이 없었다면, 손으로만 살짝 쳐도 살얼음이 갈라지듯 깨졌을 텐데, 업이 너무나 두꺼우니 이렇게 공공 언 얼음벽처럼 아무리 깨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답니다. 정말이지 아주 적절한 비유의 꿈이었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교묘하고 두꺼운 성질이 있어서, 업에 가려 있으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면서도 잘못된 그 길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주변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조언을 해주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잔소리가 심하고 말도 심하게 하고 말쟁을 하도 많이 피우는 각자님을 둔 한 보살님은 자신이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불공을 하는데도 각자님의 믿음이 없어서인지 어떤 변화도 없었다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한쪽이 아무 리 예쁘다, 예쁘다 한들 상대에게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질문이 생깁니다. 무작정 참아야 하는 게 능사인가, 하는 딜레마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업이 두렵다면, 어쨌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은 직후의 광경을 떠올려봅시다. 세상에 갓 나온 새끼는 처음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미는 억지로 눈을 뜨게 하는가요? 기다리면 됩니다.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눈을 뜰 때가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이 소멸되는 것 역시 기다림의 미학도 필요한 법입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갇을 빛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도, 남편도,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갇을 빛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빛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무한정 잘해줄 수만 있었습니까? 서로의 속을 썩어가면서 그런 와중에 빛의 존재를 인지하고 또 갇아나가는 게 아닐까요?

물론 수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업을 소멸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고통이 왔다가 사라지고, 또 왔다가 사라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고통을 받으면서 흥을 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기보다는 그 고통을 견뎌내며 받아들이고 시간을 들여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빛을 갇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불공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고행이 해결법은 아닙니다. 얼음을 녹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는 업을 짓는 것은 쉽지만, 소멸시키는 것은 힘든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고행과 수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살님들이 지혜로운 수행의 길을 걷기를 서원합니다.

불교는 허무주의인가?

“모든 것이 인연의 소치임을 깨닫고 인연에 수순”
“좋은 인연 적극 만들어가는 대자유의 길 걸어야”

미국에서 가르치는 한국 출신 교수가 미국 대학생들이 불교에 대해 가지는 의문들을 얼마 전 SNS에 올렸다. 왜 쇠붙이 불상에 절을 하느냐, 불교는 염세주의가 아닌가,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지 않은데 그 뒤 여러 학파들의 이론은 복잡하고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불교가 허무주의의 아니냐 하는 학생들의 의문은 이렇다. 삶이 고해(苦海)이고 모든 것이 환상이며 또한 공(空)하다고 하는데 왜 삶과 세계를 꼭 이렇게 염세주의적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반쯤 빈 술병을 “아, 벌써 술이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와, 술이 아직도 반병이나 남아 있구나!”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지 않은가?

불교가 왜 삶을 고해에 비유하는지, 또 무아 내지 공의 가르침은 왜 시설했는지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의문들이다. 그리고 불교 내부적으로도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사이에는 논리에 대단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공부한 불자들조차 불교가 혼돈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다. 과연 불교가 허무주의인지 아닌지 집중적으로 따져 보자. 이고득락(離苦得樂)을 권유하는 가르침은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듯 보이기도 한다. 불교는 이 세계가 기본적으로 참고 살아야 할 사바세계인 만큼 부지런히 도를 닦아 열반의 세계에 들도록 가르치고 이 언덕을 떠나 저 언덕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강물을 건너는 헛묵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 특유의 복합적 논리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기(緣起)와 중도(中道)는 이것과 저것이 갈로 자르듯 나눠지지 않고 상호 의존되어 있음을 선언한다. 그래서 열반도 꼭 어디로 나아가 성취해야만 하는 절대적 경지라 하지만 그것은 세속과 엄격히 분리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열반의 세

게임이 선언된다.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아미타불의 불국토가 있다지만 깨달은 마음 속에 불국토가 건설되기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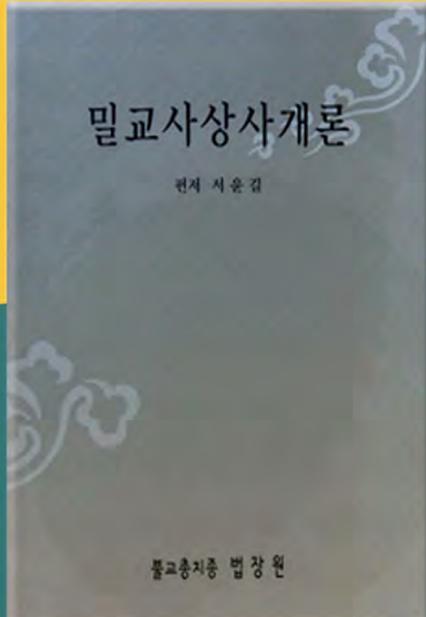
이런 복합적인 논리구조에 따라 불교가 세속적인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출세간적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며, 그렇다고 출세간적인 가치에 매몰돼 세간적 가치를 배척하지도 않도록 한다. 꼭 쥐고만 있던 세간적 가치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놓아지면서 세상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 또한 집착의 대상이 아니어서 허무주의에는 빠지지 않는다.

번뇌도 흔히 깨달음의 방해 요소로서 버려야만 할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불교에서는 ‘번뇌가 곧 보리(煩惱即菩提)’라 해서 깨달음의 지양분이 된다. 선불교는 번뇌를 회피해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 행복의 밑거름이므로 적극 대면하도록 하며, 아예 번뇌 없이는 깨달음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또 잊지 말 것은 불교가 개개인의 고유한 상황과 능력에 맞춰 설해진 대기설법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탐욕에 젖어 자기도 망치고 세상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욕심을 내려놓으라 가르친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욕심이나 세상을 위한 유용한 욕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커다란 원력으로 존중된다.

허무주의는 이 세상에서조차 세상에서도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을 떠돌거나 숨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나 불교는 어디 있든지 모든 것이 인연의 소치임을 깨닫고 인연에 수순하도록 한다. 우리는 인연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연기·중도의 시각을 바탕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대자유의 길을 지향할 일이다.

김봉래(불교방송 선임기자)



대승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바탕으로 밀교의 수행체계를 집대성한 최고의 밀교개론서

대승불교의 최고봉인 밀교 교리의 대중화 밀교사상사개론

편저 서운길

불교총지중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2동 776-2) / Tel 02.552.1080

총지종 기로스승 원봉 정사 입적(入寂)

통리원장 인선, 저희들 곁을 떠나 극락정토에 가시더라도...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장례위원장)는 기로스승 원봉(圓峯) 정사의 입적 소식을 전국사원에 알렸다.

원봉 정사는 총기47년(2018)6월 25일 오전 8시 13분에 입적(入寂)에 드시고 총지종 법석에 따라 기로원장으로 치루어졌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원봉 대정사

님의 열반 앞에 망연자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오늘은 비록 저희들 곁을 떠나 극락정토에 가시더라도 계속하여 종단발전과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저희들을 하루속히 인도해 주시옵고,”라며 추선 하였다.

유가해 전수(수인사)는 “원봉 대정사님의 열반 앞에, 그 슬픔이 한량 없습니 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앞이 캄캄해

니다. 원봉 대정사님께서 일생을 오직 중생제도와 종단발전에만 매진하셨던 큰 스승님이셨습니다.”며 추모 하였다.

발인은 6월 27일 오전 6시30분 고결식이 행해졌고 경주하늘마루에서 다비가 이루어졌다. 이후 법체는 한국전장(6.25) 참전용사로 영전 호국원에 안장되었다.

원봉 정사는 1932년 경주에서 태어나 1981년 불교총지종 대법사로 입교하여 승천사, 국광사, 수인사, 실보사를 역임하였고 1985년부터 중앙종회의 의원, 통리원 총무부장, 사감원장, 대구경북 교구 교구장 등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37년간 교화 스승으로 몸담았으며 경주 승천사에서 입적에 들었다.

통리원장, 종법 개정위원회 회의 소집

시대와 상황에 맞는 종단의 법률 용어 선택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6월 18일 종법 개정위원회 회의를 소집, 문화센터 4층 임시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중앙종회의 의장 수현 정사의 집공으로 시작된 회의는 위원장인 통리원장 인선정사, 고문으로 기로스승 지성 정사와 중앙종회의 의장 수현정사와 5명으로 구성되었다.

종법개정위원회 위원장 인선정사는 “이번 종법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안전 결과와 종단에 잘 반영되도록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종법 개정위원회에서는 종법

이 현재 종단 상황과 동떨어진 조항들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생활 불교를 표방하는 종단의 취지에 맞는 법률용어 선택을 하고 있다. 종헌과 종법은 종단 운영의 지침이 되어야 하며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 그것을 증명시키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종헌·종법의 개정(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한국전통문화 몽골 불교교류사업

한국불교 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불교문화체험”



한국불교 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한국전통문화 몽골불교교류사업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및 지구촌공생회에서 지원하는 불교문화체험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고 있다.

일정은 6월 18일(월)부터 6월 22일(금)까지 진행되었다. 주요 공식일정으로 6월 21일 몽골 학생들과 함께하는 연합행사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몽골드

립센터 및 지구촌공생회 청소년 센터에서 주관한다. 이후, 몽골사찰 “간단사” 견학 체험도 있었다.

한국 문화체험 행사로는 연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예교백 그리기 현지 활동 직원 및 봉사자들과 참가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 되었다. 본 사업 대표단 단장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진경스님은 “본 행사에 참가한 모든 분들께 좋은 기억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뜻깊은 체험이 되기를 기원했다.

본 사업은 총지종을 비롯한 한국의 29개 대표종단이 가입되어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이다. 몽골은 중앙아시아 내륙 국가로써 구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가 된 국가이다. 몽골불교인 라마 불교는 공산혁명 전에 7백여개의 사찰이 있었으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종교적 억압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사원인 “간단사”를 순례한다. 그리고 몽골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몽골문화도 체험하고자 이번 사업을 취지하였다. 이번 불교문화체험에 불교총지종은 이수협과장, 김태원계장, 김평석계장이 참가했다.

<12면 몽골 문화체험 계속>
통리원=이수협 과장

“부처님 오신날” 국군장병 자비의 선물 후원

국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뜻” 전해



불기2562년(총기47년) 불교총지종은 노고에 감사하며 봉축 위문품을 후원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국군장병들의 하였다.

경기도 연천 28사단 273포대에 있는 정립사에 떡, 클렌징크림, 단주 230개를 위문품으로 후원하였다. 그리고 28사단 사단본부에 80개를 후원하였고, 5사단 35연대에는 90개를 후원하였다.

이날 국군장병들은 위문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28사단 273포대 중령 광성희 대대장은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드리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교총지종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대한민국 국군의 패기있는 모습을 보였다.

총지종보 제호(題號) 공모

‘총지종보’의 새로운 이름을 찾는다

불교총지종은 창종 47년을 맞아 앞으로의 반백년을 준비하는 교화사업의 일환으로 23년간 사용해온 총지종보(월간신문)의 이름을 새로이 공모한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지난 추계강공에서 “총지종보가 언론매체로 대의 활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종보 제호를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변경사유

를 밝힌바 있다.

종보의 새로운 이름에는 생활불교의 미래 지향적인 종단 이념을 잘 담고, 총지종 언론 매체로서 소통과 교화 목적에 잘 부합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제호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며 마감일은 7월 30일까지 통리원 종보실로 보내면 된다.

종립학교 동해중학교 이사회 개최

정종윤 국어 선생님 건강상 문제로 명예퇴직

6월 5일 불교총지종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장 (통리원장 인선)은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 에서 정종윤 국어 선생의 명예퇴직을 심의 가결 하였다.

이사장 인선정사는 “정종윤 국어선

생의 건강상 문제로 명예퇴직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다른 교직원들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할 것”을 요망하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

정종윤 선생님은 58년생으로 경북대

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과를 졸업하였으며, 1983년에 동해중학교에 첫 부임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 교육감 표창을 수여 받았다. 정종윤 선생은 동해중학교에서 35년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 하게 된다. 퇴임은 8월 31일 예정이다.

총지종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개시

소통하는 종단 언론이 되고자...

통리원은 종단 홈페이지 PC용을 모바일과 연계된 반응형 모바일 홈페이지 연동 서비스를 확대 개시한다.

30일 반응형 모바일 서비스 시작으로 친숙하게 다가가는 불교총지종이 되기를 희망하며 홈페이지 이용이 소

통의 장으로 활동 될 것을 기대하며 반응형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초기 화면 첫 페이지에 종단 행사 안내와 종단 소식을 통해 빠른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이어 최근행사와 통리원 부서별 메일, 설법,

사회복지재단 아이콘을 만들어 접근성을 향상하였다. 하단으로 월간지 위드드라마와 통리원 공식사항을 배열하여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하단에는 총지종 전국사원 검색창, 총지종 교리, 이담의 법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반응형 서비스 개시로 총지종의 발전과 소통을 통한 중생교화에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통리원=심유식

정각사 단월회

정각사 남자 교도들로 구성된 단월회는 자성일 불공 후 친목도모와 봉사 및 후원 활동을 합니다.

회장 : 강경중 / 총무 : 김진화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8-8) | 전화 : 051-552-7901

동해중 소식

Wi-Fi 창업 진로교육 특강을 실시

청소년들 벤처 정신 및 경영 마인드 실행력을 위해



동해중학교(교장 탁상달)에서는 2018년 6월 1일과 7일 이틀에 걸쳐서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동해중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와 직업을 창조하는 새로운 방식의 진로 개발 역량과 창업·기

업·시장·사회에 대한 이해와 도전 정신 함양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입시에 대한 부담감

과 학교 공부에 대한 중압감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창의적 진로 수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청소년기의 벤처 정신과 경영 마인드 제고 및 실행력 고취와 도전 정신에 있는 만큼,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본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첫째, 기업이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이 될 뿐만 아니라

둘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 아이디어 개발로 열정과 끈기를 배우며

셋째, 사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봄

으로써 기업이 경영 마인드를 익히며 넷째,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Wi-Fi 창업 오리엔테이션, 둘째는 기업형 창업 체험 프로그램 소개, 셋째, 창업의 다양한 방법 소개 및 창업방법과 창업 사례 소개로 이루어졌고, 넷째, 창업 아이디어 스케치 및 제안서 작성법 등을 통해 마지막으로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순서로 기획하였다.

우리 학생들은 이번 행사에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한 명도 흐트러짐 없이 지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진로교육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의미있는 특강이었다.

탁상달 교장

손 안에 보이는 세상 News Finder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보조교사 6천명 채용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천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경정예를 통해 확보한 예산 1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운영상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부분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수당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2천300명으

로, 이번에 투입되는 6천명을 합치면 총 3만8천300명이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교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 지정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 사항이지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이나 낮잠 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다. 보육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인력에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박남오 기자



미디어 포교 '소통'이 키워드

콘텐츠 관련 연구 선행돼야... 기존 플랫폼 적극 활용 주문 "뉴미디어 포교, 소통서 시작"

1980년대 유일한 뉴미디어는 'TV'가 주를 이루었고, 1990년대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2010년대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지배했다. 때 시기마다 이른바 '뉴미디어'는 존재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뉴미디어의 의미는 '소통' '상호영향'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불교 포교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강하다.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해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론을 따지기에 앞서 2018년 뉴미디어 포교의 키워드가 '소통'이란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페이스북 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이 각광받는 이유는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공급자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이다. 소통을 골자로 한 미디어 활용이 바로 뉴미디어다. 그렇기에 뉴미디어 포교 또한 이러한 상호 커뮤니케이션

이 있어야 한다.

수행을 점검받고, 도반끼리 신심을 높이고, 사찰의 개선점을 제안하는 상호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교계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입장으로 돌아 가야 한다. 즉 사찰을 찾는 일반 시민의 눈에서 보아야 한다. 비불자의 입장에서 불자들의 행동을 바라보아야 한다. 재가자의 입장에서 출가자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변화해야 한다.

불교계는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제도와 플랫폼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면에 상호소통,

그리고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말하면 포교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의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미디어 포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플랫폼 보다 콘텐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 콘텐츠 유통 과정 파악 △불교 콘텐츠 니즈 분석 △불교 콘텐츠 제작 연구 △불교 크리에이터 인력 배양 △기술 발

전에 대한 빠른 접근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불교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불교 지식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도 시급하다. 대장경 등 구축된 정보가 국한돼 사용된다. 연계 검색과 콘텐츠 창작을 위한 자료 제공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불교계가 하루 빨리 해야 한다. 사찰의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해 사찰서 콘텐츠 진흥기금을 출연해 각 사찰의 문화와 문화재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는 작업도 병행해 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불교 콘텐츠 제작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불교 포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뉴미디어에서는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크며 이들이 제작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도 창출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가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콘텐츠 보급과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뉴미디어 플랫폼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으로는 '소통'을 들 수 있다. 뉴미디어의 포교 활용은

결국 이런 '소통'이란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 오피라인 공간인 사찰에 가도 기존 고령층의 불자들이 어울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뉴미디어 포교는 출제자,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서 시작해야 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툰블러' '블로그' '유튜브' '플리커' 등등 최근 뉴미디어 분야는 하루에도 수십가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진다. 이들 중 대중의 선택을 받는 플랫폼은 극소수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포교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빠른 변화의 분야인 만큼 전문가 대부분은 기존 플랫폼 활용이 직접 개발보다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불교계 주신도중인 40대 이상을 위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대단일 수 있다. 최근 홍보 등이 진행 가능한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계정이 있다. 각 종단과 사찰별로 플러스 친구 개설 등도 추진할 만하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기저귀·물휴지' 국민청원 검사제 첫 대상 선정

식약처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용 기저귀와 물휴지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7월부터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 다수가 추천해 채택된 청원에 대해 검사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팹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정책이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 추천이 완료된 청원 23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채택됐다.

심의위원회는 어린이용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함께 검사해 국민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저귀 청원은 어린이가 온종일 쓰는 기저귀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었으며, 물휴지 청원은 일부 제조사가 이슈가 된 유해 물질 몇 가지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아동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심의위를 통해 검사항목을 정하고, 제품별 유통상태를 고려해 7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저귀에 대해서는 발진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부자극 등에 영향을 주는 형광증백제, 폼탈알데히드 등 19종, 물휴지에 대해서는 중금속과 폼탈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등 13종 물질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추가로 필요한 시험항목을 선정해 검사한다.

검사 과정과 결과는 팹캐스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회수·폐기에 이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지형 기자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5월 21일 ~ 6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Table with 4 columns: Name, Type, Date, Amount. Lists donors like 개천사, 관성사, 동해사, 법천사, 법황사, 수인사, 실지사, 정각사, 지인사, 총지사.

Table with 4 columns: Name, Date, Amount. Lists donors like 이수경, 신용도, 박정희, 손경옥, 무명씨, 화음사, 흥국사, 기로스승, 선도원.

Table with 4 columns: Name, Date, Amount. Lists donors like 법지원, 일성혜, 불멸심, 사홍화, 안주화, 해정, 원봉, 지선행, 일원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포레스타7, 사원명무기명.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14

『대승장엄보왕경』의 법신으로서의 관자재보살(1)

밀교에서는 관자재보살을 대일여래의 응현으로 보고 있다. 대일여래는 마하바이로차나타타가타(Mahāvairocana-tathāgata)의 의역이다. 대일이라 부르는 것은 여래의 덕이 세간의 태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며, 제암변명 혹은 광명변조를 뜻한다. 대일여래를 비로자나불 또는 법신불로도 부르고 있다.

대일여래는 삼세에 상주하는 불신으로, 제법의 근본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 色相은 허공에 두루하고 그 광명과 음성은 시방삼세에 두루하다. 대일여래는 절대세계와 현실세계의 일체 사물을 나타낼 수도도록 하기 위해 무량의 불신과 더불어 모든 존재를 법신이라 하고 있다.

일체는 법신불에서 나와 또한 일체는 법신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법신불, 즉 대일여래는 하나이면서 일체이고 일체이면서 하나의 불신인 것이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제불제존의 수가 무량하여도 모두 대일여래를 떠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밀교의 독자적인 불신으로 대일여래의 증생에 대한 자비 덕상을 사종의 모습으로 증생에게 나타내어 여래자비의 경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자재보살은 대일여래가 증생구제를 위해서 방편으로 응현한 보살이

며, 역시 대일여래를 떠나지 않은 자비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를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찾아보면, 과거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니 미발시여래 -중략- 불-세존이라 했다. 나는 그때 한 장자의 아들이었는데, 이름을 묘향구라고 하였으며, 그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이 관자재보살의 위신공덕에 대해 들었느니라.

관자재보살의 대위신공덕에 대해서 석가세존께서는 이미 과거겁의 인행시에 석가세존이 묘향구라는 장자의 아들이었을 때, 미발시여래로부터 들은 바가 있음을 밝힌다.

또한 세존께서 용시보살로 있을 때에도 시기여래 처소에서 들은 바가 있음을 설하고 있다. 그 명호를 시기여래 -중략- 불-세존이라 했다. 나는 이때 용시보살마하살이되어 그 부처님의 처소에서 관자재보살마하살의 위신공덕에 대해 들었노라. 또한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석가세존께서 미사부불시대에 인옥선인으로 수행중일 때 관자재보살로부터 『대승장엄보왕경』을 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관자재보살에 대하여 이미 과

거겁전부터 여러 부처님의 처소에서 증생을 구제하여 왔다고 설하고 있는 내용에서 관자재보살은 이미 과거겁전에 성불했으나 증생구제를 위해서 보살의 몸으로 현신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석가세존과 관자재보살의 전생담을 설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관자재보살의 법신으로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석가세존이 옛날 대상주였을 때, 재보를 얻고자 오백 명의 상인과 함께 큰 배를 타고 사자국으로 갔다. 사자국으로 가는 도중에 나팔녀가 일으키는 사나운 폭풍에 배는 파괴되고 상인들은 표류하다가 나팔녀가 사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때 성마왕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나 상인들은 나팔녀의 환심에 애착하여 죽음을 당하고 대상주만이 위험한 재난에서 구제되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때의 성마왕(聖馬王)은 곧 관자재보살마하살이니 이러한 위급한 곤란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제하였다고 하여 대상주는 전생의 석가모니불이고 성마왕(聖馬王)은 관자재보살이라고 설한다.

이처럼 석가세존의 과거 인행시에 관자재보살의 도움을 받았음을 설하는 내용에서 관자재보살은 법계에 항

상 상주하면서 증생을 구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관자재보살이 법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보살의 이름은 관세음자재이며 일명 연색이라 하고 또 일명은 천안광이라 하느니라. 이 관세음자재보살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위신력이 있으니 이미 과거 무량수아승지겁 전에 성불하여서 호를 정법명여래라 하나 대비원력으로 일체 증생을 성숙시켜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짐짓 보살의 몸을 나타냈느니라 라고 하여 관자재보살은 이미 과거 무량겁 전에 성불한 부처님이지만 증생을 고통에서 구하려는 대비원력의 방편으로 사바세계에 보살의 몸으로 현현한 것이라는 것이다.

관자재보살은 이미 수행이 완성되어 깨달음을 성취하였으나 피안에 머물지 않고 차안에 머물면서 증생들의 고통을 해탈시켜 피안의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대비심을 지닌 분이다. 이러한 대비심으로 관세보살은 법신의 지위에서 내려와서 세간에 화현하여 증생을 구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서 관자재보살은 이타행의 대비심으로 보살의 몸을 나타냈을 뿐 법신 대일여래의 응현이라고 볼 수 있다.

왕초보 심리학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감각, 지각, 인지

밀행사 주교 도현 정사

감각 지각 인지의 의미

눈앞에 오렌지가 있다고 하자. 이 오렌지를 ‘노랗다’고 느낀다든지 오렌지 ‘향이 좋다’든지, 아주 ‘먹음직스럽다’ 라고 느끼는 것은 감각이다. 그런데 감각이 받아들인 정보와 과거의 경험 혹은 학습 등과 환기시켜 조합하여 종합적으로 우리의 뇌가 ‘이것은 오렌지’ 라고 판단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지각’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이것은 소금’, ‘이것은 핸드폰’, ‘이것은 책’이라고 정확하게 알아 차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감각과 지각의 연속으로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지각에 대한 기억이나 추론과 같은 생각하는 과정을 포함시킨 것을 ‘인지’라고 한다. 따라서 인지라는 개념은 감각, 지각, 인지라고 하는 각각의 사고 과정에서 가장 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의 사례를 가지고 말하면 오렌지를 보고 오렌지의 특징과 종류,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오렌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법 등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렌지에 대한 인지이다.

심리학 용어에서 감각, 지각, 인지의 의미 차이점

또한 감각이 받아들인 정보 가운데 싫다, 좋다, 같은 구분하는 것이나 혹은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과 그다지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체계화’ 과정도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받아들일지는 인지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감각(sense)	지각(perception)	인지(cognition)
<p>눈앞에 있는 오렌지- 단순한 느낌 그 자체</p> <p>주변세계의 자극에 따라 작동하는 것(눈, 코, 귀 등)</p> <p>● 오감(五感)으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중추신경계로 전달되어 느끼는 것이 ‘감각’이다.</p>	<p>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조합하고 과거 경험 등을 상기시켜 종합적으로 ‘이것은 오렌지다’라고 판단하는 것</p> <p>감각기관의 종류에 따라 지각은 보기, 듣기, 더듬기, 맛보기, 냄새 맡기, 운동감각적 지각, 시간지각</p> <p>● 전달된 정보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지각’이다.</p>	<p>지각한 사물에 기억이나 추론 등과 같은 사고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 말기의 특징과 종류, 그것이 갖는 이미지, 용도 등</p> <p>● ‘생각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지각, 기억, 언어, 문제해결 등이 포함된다.</p> <p>● 인간이 외부세계와 접촉하여 얻은 지식</p>
감각 심리학	지각 심리학	인지 심리학
인간이 어떻게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있는 형태로 수용·처리 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	지각심리학의 일부로 인간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감각과 같은 자극의 수용기관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뇌에 들어 온 정보들을 선택하고 비교하며, 기억 속에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 전환시킴으로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다루는 분야이다. 따라서 기억과정, 정보처리과정, 사고과정, 언어과정 등이 주요 관심 사이다.



범상 정사
연명의료 7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 및 용어II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두 번째 시간으로 환자의 의사 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의사 추정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4가지 시술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한 경우에도 환자의 의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해 평소 의사에 대하여 ‘환

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환자 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이때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에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에 의사로 보고 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는 “연명의료계획서”에는 작성 대상을 ‘말기환자 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의 활용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을 경우 환자의 의사로 본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들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 법률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절차에 의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그리고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하여 연명의료계획서에 동의하는 과정을 내실화하고 있다.

‘말기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서의 확인,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작성연월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하며, 변경하거나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때 그 시절

방생대법회 개최
총기12년(1983) 7월16일 - 18일

조국 평화통일 및 천만 이산가족 조속 해후를 위한 방생 대법회 봉행.

- 부산,경남교구 교도일동은 부산 시 구포 하구둑에서 봉행.
- 경북교구 교도일동은 월성군 양북면 기림사 호반(湖畔)에서 봉행.
- 서울교구 사원합동방생불사를 충북 화양계곡에서 봉행.

밀교비법 전수
총기13년(1984) 7월21일

성지순례차래원(來院)한 동방대학생 35명에게 본 종단에서 실행하는 육자의 계법을 전수하다.

제1회승자수련회 개최
총기14년(1985) 7월23일 - 27일

도제양성해과 승자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일차적으로 정사만 소집하여 45일간 본 원별관 3층 강당에서 밀교전래사(현당)밀교학(교강)만다라도해(청담)계율과 예절(목정)을 강의. 유익한 수련회를 원만 회향했다.

● 사원명:개천사(開天寺)
● 예전사원명: 대구선교부(大邱宣敎部)
● 예전사원주소: 대구시 중구 봉산동 230-12
● 개설일자: 총기2년 3월 19일
● 개천사 개명일자: 총기5년 3월 19일
● 개천사 신축완공: 총기20년 3월 28일

사진제공-재단사무국

범자진언

Ka字

범자 쓰는 순서

경전예문(신묘장구대다라니)

마하-까루니까야(범음)
마하 가로니가야(한자음)

- 마하 가로니가야는 대자대비 하신 분께 라는 뜻.
- 마하 -대, 가로니 - 자대비, 가 - 하신, 야-분께.



사/원/탐/방

베푸는 소리가 가득한 곳, 단음사



▲ 사진 = ① 단음사 ② 단음사 옛모습 ③ 주교 수현 정사



서로 배려하고 웃으면서 생활하는 단음사(檀音寺)

단음사(檀音寺)

박달나무 단에 소리 음자를 사용한다. 단의 어원은 범어 단나(dana)의 음역자이다. 보시, 베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단어의 뜻 그대로 베푸는 소리가 가득한 사원이다.

보통의 총지종 사원들의 보살님은 여성들이 대부분인 반면 단음사는 역대 경북의 사원중에 정각사 다음으로 각자님들이 많다. 각자님의 조직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가족제도 역시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살님들 중 다수가 각자님들을 따라 입교하였다.

또한 주요 생업이 농촌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보살님들의 나이가 적지 않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에 젊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긴다. 보살님들의 손자, 손녀가 사원에 찾아와 마당을 뛰놀고 조금 소란스럽게 놀아도 누구 하나도 큰 소리 내거나 말리지 않는다. 아이는 아이답게 시끄럽고 뛰어 놀아야 한다는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의 배려가 넘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을 대하는 일인 만큼 관계나 사람으로 스트레스 받을 법도 한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농촌의 사람들답게 순박하고, 쉽게 웃고 웃으며 감정표현에 솔직한 것이 장점입니다.” 라고 수현 정사는 전했다.

영천에는

만 원권 지폐의 뒷면을 자세히 보면 조선시대에 제작된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배경으로 조선시대의 천체관측기구인 혼천의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바로 옆에는 보현산천문대에 설치된 직경 1.8m의 광학망원경이 자리 잡고 있다.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에 우리나라 천문과학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셈이다. 해마다 4-5월이면 보현산 자락에서 별빛축제가 열린다. 1년에 딱 한 번 야간 개방하는 보현산천문대의 1.8m 광학망원경도 볼 수 있다. 보현산천문대 체험은 물론 보현산천문과학관과 별빛마을 등에서 아마추어 천문캠프, 천체관측 및 세미나, 별자리 문학답사, 1.8m 광학망원경 모형 조립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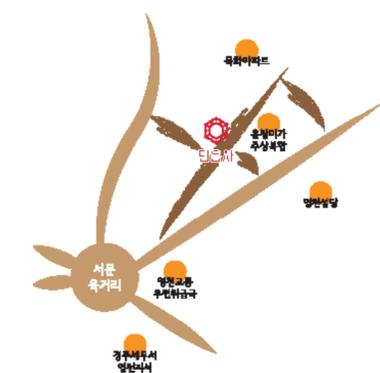
영천에는 유적과 고락 정자도 많다. 시내 창구동에 있는 조양각은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영남 3루'로 꼽힌다. 고려 공민왕 때 포은 정몽주 선생과 당시 부사였던 이용, 유립들이 합심하여 건립했다. 포은 선생의 '청계석벽'을 비롯해 울곡이이, 서거정 등이 고장을 거쳐 간 명현·풍류객들의 시구가 새겨진 80여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영천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나 화남면 한천 일대에서 승리를 거뒀다. 한국전쟁 때는 낙동강 방어선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영천지구와 신녕지구

전투는 나라의 운명을 되살린 전투로 꼽힌다. 영천은 '호국의 고장'으로도 불린다.

단음사 부처님 오신날은 포틀럭 파티

미국에는 포틀럭 파티란 문화가 있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한 곳에 모아 나눠먹으며 파티를 즐기는 문화이다. 주최자가 모든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 부담감이 없고, 참석자들도 자신이 잘 하는 요리를 여러 사람 앞에서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티가 끝나면 참석자 모두가 함께 뒷마무리를 하고 자신이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가면 된다. 경북 영천에 있는 단음사에서 도이와 같은 문화가 자리 매김 되어 가고 있다.

“보살님들께서 나물, 식혜, 떡, 밥 등 음식을 집에서 각각 준비해서 오십니다. 그러다보니 잔치가 더 크게 열려요. 공양처의 자리가 비좁아 마당에 천막을 치고 식탁을 깔고, 의자를 놓고……. 정



▲ 단음사 약도

단음사오시는길:

▶버스: 경주세무서 영천지서 정류장에서 하차 2, 2-1, 2-2, 2-3, 55, 111, 111-1, 112, 555, 555-1, 611, 612, 710, 730-1, 750, 751, 751-2, 752, 753, 760, 761, 763

‘모두, 다 함께’ 서로 배려하는 신정회



▲ 사진 = ④ 부처님오신날 육법공양 ⑤ 자성일법회 ⑥ 단음사 앞마당



말 동네 주민 모두가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며 즐거운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라며 수현정사는 호탕하게 웃음을 보였다.

단음사 신정회는 ‘모두, 다 함께’

단음사의 신정회 회장 황월분 보살은 입교한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다른 절에 다니다가 전수님을 쫓아 총지종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인척서 원당이던 시절부터 다녔는데,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른지 모르겠네요.” 황월분 회장은 지

난날을 회상했다. “단음사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것은 모두 다 스승님들과 보살님들 덕입니다. 저는 회장직에 이르면 올려놓고 있어요. 어느 한 분이라도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거나,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 안 계세요. ‘모두, 다 함께’ 라는 말이 우리 사원과 참 잘 어울립니다.” 단음사와 스승님들 보살님들에 대해 말하는 황월분 보살의 얼굴에서 웃음이 가시질 않았다. “예전에 일신행 전수님 계시 때, 무엇보다 참 계율을 잘 지키셨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현몽을 꾸면 저보다도 전수님께서 먼저 알아채시곤 하셨습니다. 여전히 전

수님의 얼굴과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저를 인자하게 보시던 눈빛, 단정하고도 자비로웠던 그 목소리가요.” 황월분 회장의 눈에서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인터뷰를 마치고 수현정사는 “87년도에 총지종에 입교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승직자이시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빨리 접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익어있다고 보는 게 맞지요. 총지종의 행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어렸을 땐 불공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셨습니다. 사실 종단에 입사한 것도 어른들의 뜻이 컸지요. 당연히 억지로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시간이 자날수록, 참 어렵고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수록 두렵습니다. 이제는 승직을 하고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땐 참 멋도 모르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아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니 오히려 입을 여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보살님들과 이야기할 때 때때로 조언을 하는 입장에서 저의 말 한마디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조심하고, 또 신중하려고 노력합니다.”라며 겸손한 모습을 비추었다.

취재=박설라

주교: 수현 정사
주소: 경북 영천시 서문길33 (성내동 181-8)
전화: 054-333-0526

지상 설법

지혜로운 삶



단음사 주교 수현 정사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수행 중이던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하고 거창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조고각하(照顯脚下)야, 네 발 밑을 보아라."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거창하고 큰 깨달음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고, 오직 현재를 잘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본인의 현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거창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께서 팔만 사천 가지 법문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오직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도 큰 깨달음입니다.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타인의 불행입니다. 남의 집에 불이 나고, 누가 사기를 당하고, 누군가는 싸움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정작 자신의 현실에 쏠아야 하는 에너지를 남에게 낭비하는 꼴입니다.

우리가 불공을 할 때만큼은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때만큼은 진실로 부처의 마음을 갖고,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친 것 마냥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주를 놓고 다시 나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삶을 놓고 언제까지 세상 만물의 이치만을 탐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마가 왜 서쪽으로 갔는지 궁금해 하지 말고 현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크고 거창한 것에만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불공을 하며 그저 가족의 평안과 무탈을 바라는 것도 부처의 마음입니다.

어떤 절에 아주 큰 그림이 하나 있었

습니다. 그 절의 랜드 마크이기도 하여 절 초입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 그림 앞에 어떤 맹인이 하모니카를 불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에 다니는 보살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지요. 랜드 마크와 같은 커다랗고 예쁜 그림 앞에 걸인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만 하며 몇 날 며칠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 절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맹인이 늦은 시간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맹인은 너무도 익숙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지팡이를 짚으며 대웅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보살께서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를 '대웅전에서 잠이라도 청할 요량인가보다.' 싶어서 그 맹인을 따라갔습니다. 대웅전에 들어선 맹인은 또 다시 너무도 익숙하게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자신이 적선 받은 돈에서 일부를 희사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보살은 행색으로 남을 판단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크게 누우셨습니다.

보시나 적선은 항상 때를 놓치지 않

아야 합니다. 적선을 받아서 술을 먹을 수도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사먹을 수도 있었지만 부처께 희사하는 마음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라. 서 있는 그 곳이 모두 진리의 자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루소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색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해서 아침이면 눈을 뜨고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을 한 바퀴 돈 후 의자에 앉아 사색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은 사색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 한 쪽이 없는 아이가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루소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아이에게 적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크게 기뻐하며 루소에게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아이가 기뻐하자 루소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져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에게 기본 좋은 적선을 하는

것으로 루소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패턴이 매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는 예전만큼 기뻐하지 않았으며, 루소도 처음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내리 루소가 평소보다 늦게 공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에 급하게 나온 루소는 깜빡하고 돈을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를 만난 루소는 늦음과 돈을 챙기지 못했음에 미안함을 표시했으나 아이는 서운한 기운을 영 숨기지 못 했습니다. 나중엔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루소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돈을 기다렸고, 또 자신이 아니라 돈 때문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아이에게 계속해서 적선을 할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날 아이를 만난 루소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며, 네가 올바르게

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아이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원에도 적선을 원하고 오시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적선을 했을 때 밥을 사 먹을 사람인지, 술을 사 마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서원당에 가서 삼배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삼배를 하고 난 후에는 작은 성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 올린 정성만큼의 복은 자신이 지은 만큼 받아간다고 했습니다.

요즘 불공 열심히 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하고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자신의 현실이 바쁘고 급하여 불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는 않았는지 돌아켜봅시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염승을 외고, 염주를 쥐며,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학이 교도

입교한지 어느 새 20년.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사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 것 말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 보았지만, 원인도 병명도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임시방편으로 지어준 진통제로는 저의 고통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동네에 알고 지내던 보살님 한 분께서 저에게 같이 사원에 가볼 것을 권유하였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단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단음사를 가기로 한 날은 자고 일어나니 거짓말처럼 두통이 전 날보다 덜 한 것을 느꼈습니다. 걸을 때마다 머리 안의 골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도저히 움직

일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의 시작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통이 덜 해졌을 뿐, 여전히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원으로 가서 전수님을 뵈고 저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수님은 너무도 온화하신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격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곤 머리가 아플 때마다 진언을 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불공을 할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쉬지 않고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면 더욱 더 집중하여 진언을 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갖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

다. 저는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전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사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전수님 얼굴을 뵈고 매일같이 출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스스로와의 어긋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시에는 저의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두통이 심하여 사원으로 가는 것조차 너무 힘든 날도 있었지만 저는 그 고통과의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부처님과 전수님,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전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제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며 저와의 약속을 지켜나갔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것이, 불공을 하고 염승을 외는 동안엔 머리가 아프지 않았습니. 서원당에 앉아 불공을 할 때면,

누군가가 저를 품에 안아 제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아프지 말라며 쓰다듬어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포근한 느낌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벅차올라 더욱 더 쉬지 않고 불공에 정진하였습니다. 조금씩 고통은 덜해지더니 어느새 저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때때로 저를 찾아와 시련에 들게 하였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도 두통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진언을 외었습니다. 부처님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진언을 외며 집중을 하면 어느새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런 생활이 세 달쯤 지나자 두통은 언제 저를 괴롭혔냐는 듯 씻은 듯이 나아났습니다.

두통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보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라리 병명이라도 알면 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을 텐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종일 방안에 누워있을 때면 저를 괴롭히는 두통보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 저를 더 괴롭게 하였습니다.

병이 낫고 나니 저는 일상생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누워있지 않고 제가 무엇이든 제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활자를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두통이 시달릴 때는 신문이나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슬펐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하면 두통 때문에 글자들이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일도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신문도 여러 가지로 구독하여 읽고, 부처님의 말씀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참으

로 감사합니다.

일상을 찾고 나니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욕심이 참으로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여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넉넉하지 않더라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이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저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만을 바랍니다.

고통은 제가 평소 좋아하던 것들조차도 싫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참 나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신 전수님과 부처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도 분들도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고통을 물리쳐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도합니다.

리라이팅 = 박성라



전치조 교도

저는 총지중에 입교한지 25년 정도 된 전치조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의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생활의 균형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휘청거렸습니다. 각자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나, 싫을 정도의 술을 매일 마셨고, 담배도 하루 두 갑씩 피웠습니다. 전에도 누군가가 제게 총지종을 권하는 일이 있었지만 도무지 마음이 동하지 않아 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인이 제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시 한 번 총지종을 권해서 단음사 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염승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갔습니다. 전수님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옴마니반메훔 진언만 열심히 외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 집에 가서도 부처님께 염주를

들리며 진언을 되뇌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 살던 각자님은 제가 불공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부엌이든 다락이든 집안 구석구석을 숨어 다니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각자님 정신이 괜찮을 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절에 구경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가면 또래 친구도 많고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집에서 시간만 보내기 심심하잖아요. 가면 놀기도 좋고,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갔다 와서도 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각자님과 함께 서원당에 갔습니다. 그 후로 각자님은 저보다 열렬한 불교신자가 되었습니다. 마시던 술의 양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새

해 불공 때에는 일주일동안 세 시간씩 내리 불공을 하기 때문에 담배를 태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각자님은 그것을 기호로 삼아 담배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저조차도 놀란 변화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내가 바쁘면 하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몇 번 결석한 일이 없었습니다. 쪽철로 버스가 다니지 않을 때에도, 운동화 끈을 딱 묶으면서 '다녀올게'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바른생활을 이어나가다가 2014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포항 수인사 특락전에 모신 상태입니다. 각자님 곁은 먼저 간 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덕을 받은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의 손자 이야기입니다. 손

자가 3살일 때 둘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애들을 데리고 분유를 사러 간 모양입니다. 작은 애는 들쳐 업고, 큰 애는 손을 잡고 갔는데 분유를 사고 장난감 하나를 고른다고 있었는데 다 사고 나오니 큰 애가 없어졌더라고요. 저녁 때 아이가 없어졌는데 자정이 되어서야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늦은 밤의 전화이기도 하고, 예감이라는 게 있었는지 전화 벨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떨려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 재웅이가 없어졌어요. 애를 잃어버렸어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곧장 전수님께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일렸습니다. 3살 밖에 되지 않은 애가 이 한밤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전수님은 당신도 불공을 할테니, 보살님도 불공을 시작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차별회를 하고 불공을 해보라는 말에 지갑을 열어 있는 지폐를 모조리 다 꺼낸 다음 염주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실종 아동 담당센터에도 전화를 해놓고, 서울에 있는 모든 전지들에게 연락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불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웅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재웅이가 발견된 곳은 역삼동 파출소였습니다. 재웅이가 역삼동까지 간 일은 절에 갈 때뿐이었습니다. 당시 손주네는 신대방동 보라매 병원 쪽에 살았는데, 총지사가 있는 역삼동까지 가려면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자기 멋대로 다리로 올라갔

다가 내려갔다 대중교통도 탔다가 하면서, 역삼동까지 간 것입니다. 이 일은 틀림없이 부처님이 도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총지중에 도움을 준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절에 가고, 염주를 돌리는 동안 마음을 다한 것만큼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처럼 가족의 평안과 안녕에 대하여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 각자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었고, 잃어버릴 뻔 했던 손주가 무사히 돌아오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마음을 다했을 때의 불공의 효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보살님들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그 곤경을 보다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리라이팅 = 황보정미

마음을 다하는 불공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문화와 생활』 (17)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주교/철학박사)

백성과 나라 위한 불공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흔한 이유가 아마도 실망감이나 배신감 등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실망을 하게 될 때 배신감과 함께 증오와 분노심은 증폭된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과 같이 백성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받게 되는 것이 정치권이고, 신의와 약속을 저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중생세계다.

지난 지방선거의 민심은 실망으로 인한 분노심의 표출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백성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민심은 언제든 돌아 설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선거다.

만약 누군가 서로 관계가 소원하고 사이가 나빠졌다면 분명 그 속에 실망과 배신감이 원인인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드시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상대적인 연기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실망이 크면 미움과 증오, 분노심이 배가 되고,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 사랑과 정(情)이 넘치는 법이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정치하는 사람이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백성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망의 대상은 정책입안에서부터 그 내용은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밥그릇이나 계과 싸움을 해서도 안 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도 안 된다. 백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다. 따라서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정쟁(政爭)을 일삼기 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협치(協治)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의 내용이다.

대다수 백성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갈망한다.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일하라는 주문이다. 부모자식과 형제간에 항상 싸우기만 한다면 그 집안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과 조직의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백성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백성을 최우선으로 할 때 그렇게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다.

백성들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정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잡보장경』의 내용이 다. 국왕과 정치인은 다음과 같이 일하라고 말씀하신다.

‘온 백성들이 다 귀의하여 공경하며 우러러 받들도록 해야 한다. 다리가 되어 만민을 견내주어야 하며, 가깝거나 먼 사람에게 저울처럼 항상 한결같

이 평등해야 하며, 큰 길과 같이 성현과 소인의 발자국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태양과 같이 널리 세간을 비추어야 하며, 달과 같이 만물에 청량함을 주어야 하며, 부모와 같이 은혜로써 기르고 자비로써 불쌍하게 여기며, 하늘과 같이 일체를 덮으며, 땅과 같이 만물을 품고 기르며, 불[火]과 같이 모든 만민을 위하여 나쁜 근심을 태워 없애주어야 하며, 물과 같이 사랑을 윤택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이다.

『반니원경』에서도 백성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하라고 설한다.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배풀어서 부족한 것을 보급하여 주며, 둘째는 어질러서 백성을 자식 대하듯 사랑해야 하며, 셋째는 마땅히 사람을 감화하여 착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며, 넷째는 이익을 얻으면 그 즐거움을 많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항상 복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 복이란

바로 민심을 얻는 것이다. 그 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으랴.

또한 관(官)에 있는 사람은 탐욕이 없어야 한다고 설하신다. 『반니원경』의 내용이다. ‘관직에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탐욕이 없어야 하며, 사치스러운 마음이 없어야 하고, 고만한 마음이 없어야 하며, 사나운 마음이 없어야 하고, 쾌락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를 버린 자는 과실(過失)과 후회가 없다’고 한다.

이 다섯 가지를 움켜쥐고 있는 자는 반드시 과실과 후회가 따른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신문 방송을 통해 늘 접하고 있지 않은가.

나라와 백성이 잘 되기 위한 불공

총지종은 나라와 백성이 잘 되기를 항상 발원하고 있다. 49일 동안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는 것이 그 예다. 5월 28일부터 시작된 진호국가불공은 7월 15일 마친다. 그 다

음날인 7월 16일에는 회향법회로서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전국 사원에 서 개최한다.

그리고 이 진호국가불공에는 선망 부모와 조상영식의 극락왕생발원이 부차적으로 가미되어 있다. 주(主)는 진호국가불공이고, 부(副)가 극락왕생발원불공이므로 진호국가불공은 낱줄이요, 극락왕생발원불공은 낱줄인 셈이다. 공식명칭은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이다. 이를 줄여서 ‘하반기 49일 불공’이라 부르기도 한다.

진호국가불공은 ‘부국강병 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 ‘재난불생 산업발전’ ‘남북·북미회담 원만성취’를 발원하며 수호국제진언(守護國界主眞言) 음축야호사를 외운다. 오늘날 총지종의 서원당(법당)에 음축야호사의 진언 염송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음축야호사. 음축야호사. 음축야호사.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6지유가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인도 후기밀교에는 대승불교 유가행의 흔적을 전하는 흔적들이 쉽게 보이며, 연구자들은 대장경과 금강경 양 경전의 수범을 계승한 적자로 후기밀교를 지목하고 있다.

밀교에 대해 내면적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석가모니부처의 가르침을 면면히 계승한 나란다대학의 이름 모를 학장들에 대해 절로 경외심을 갖게 된다. 밀교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진실을 마주하는 두려움에 얼굴을 가리는 학자나 전문가들을 많이 보았다.

종교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가식의 겹칠로부터 탈피해 진실을 마주하고 넓은 관념을 벗어던지는 것은 쉬운 일

이 아니며, 새롭게 변하는 세상과 쏟아지는 지식을 마주하는 것은 필자도 두려운 일이다.

4방편의 수행은 후기밀교 시대 수행체계의 확대에 따라 무상유가판뜨라의 범주에서 해석한 장면을 쉽게 마주한다. 위슈와미뜨라는 4방편의 구국에 대해, “자성으로서 적정력을 대성취하고 한다”라고 하였다. 인간이 가진 육신과 감각은 열반락의 현실이다. 사회적 가식과 도덕으로 머뭇거리면 출나에 진실을 잃을 것이다. 다시 위슈와미뜨라는, “자성의 광명을 대략으로 수용하는 것을 대성취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인도 후기밀교의 학장들 치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연명한 스승들은 많지 않다. 대신 많은 스승들은 교단 밖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다. 인도 84성취자 가운데 한분인 밀부빠가 있었다. 그는 당대에 유명한 밀교성취자였지만 그 지역의 왕은 밀부빠가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두고 조롱거리로 삼았다.

밀부빠는 왕이 지닌 종교적 타성과 관념을 알고 있었기에 피했거나 어느 날 왕은 사냥차 외유하여 밀부빠를 찾았다. 밀부빠는 자신의 처와 아들을 공중에 던지자 땅에 떨어지면서 밀교의 법구인 금강령과 금강저로 찰나에 바

뀌었다. 이에 왕은 자신의 행적을 후회하며 이후 밀부빠를 깊이 존경했다.

밀교는 종교와 가정과 같은 사회적 범주로부터 육신과 감각, 심지어 생명을 다루는 존재 극변의 현실도 외면하지 않는다. 지극한 진실을 꿰고나가는 것은 오로지 정성과 강한 집중이다.

후기밀교의 6지유가는 정신적 집중과 삼매를 보이는 것이다.

6지유가에 대해 ‘비밀집회판뜨라’의 18분에 해당하는 ‘속판뜨라’에는 “집중(調集)과 선정(靜慮), 조식(調息)과 집지(執持),忆념(憶念)과 삼마지(三摩地)가 6지유가이다”라고 하였다. 집중과 선정, 호흡과 집중, 기억과 삼매, 이러한 일련의 수행은 현교와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후기밀교의 6지유가는 현교와 다르게 미세유가와 틱례를 익혀야 한다. 정신계로부터 육신이 존재하는 물질계를 열어가는데 최후의 두 단서는 미세유가와 틱례이다.

불교수행자라면 누구나 좌탈입망하길 꿈꾼다. 연호하여 치매에 걸리거나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



한때 중국의 선사들은 좌탈입망하는 것이 유행하여 선사의 온전한 수행을 상징하는 증표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미세유가와 틱례는 생명의 끈과 뿌리, 줄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인연이 임박하면 그 뿌리가 치아처럼 털렁거리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선사들도 이에 대한 공부 없이 앉으며 선사들이 「능엄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이와 유관하다. 지금도 좌탈입망한 선사들의 소식이 가끔 들리지만 이에 대해 조작의 여부나 논란이 오히려 더 번거러워 보인다.

소식이 있는 수행자라면 죽음과 질병조차도 법을 벗어나지 않으며 오롯한 법성의 광명이 항상 조요한다면 병든 노구를 보는 속인이 보는 불편 따위는 께치 말아야 한다.

眞眞 眞眞 JJÖK 眞眞 眞眞

매운쪽갈비 ₩23,000 大₩30,000

간장갈비찜 ₩23,000 大₩30,000

매운갈비찜 ₩23,000 大₩30,000

배달시간

오후 5시 ~ 새벽 1시까지



장수진(단음사교도) 010-5635-7444 / 054-332-4455 / 경북 영천시 충효로 79



아름다운 삶

유모차 세운 이재황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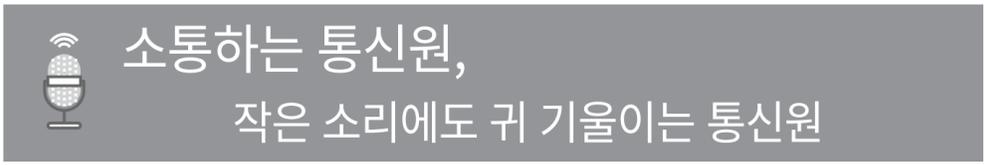
선한 시민상 수상, 유모차에 탄 아기를 기지를 발휘해 구해



CJ대한통운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시작한 '포돌이 안심택배'에 CJ대한통운 서울 동대문지점 소속 택배기사 이재황 씨가 선정되었다. 이 씨는 도로 한복판으로 갑자기 굴러온 유모차 속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이다. 택배 차량을 몰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보호자가 놓쳐 횡단보도로 굴러오는 유모차를 발견했다. 이 씨는 택배 차량을 움직여 유모차를 멈춰 세우면서 큰 사고를 막았다.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V OMS'를 통해 화제의 영상 속 택배기사 이재황(35) 씨 인터뷰

가 공개됐다. 이 씨는 "아이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유모차만 굴러오고 있더라"며 "제가 차를 세우지 않으면 일차로까지 굴러가서 다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씨는 차량 앞바퀴 쪽으로 유모차를 막아서는 게 가장 안전할 거라는 생각으로 차량을 멈추었다고 설명했다. 유모차가 택배 차량 뒤쪽 적재함 밑으로 들어가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퀴에 부딪히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는 "깜짝 놀라서 심장이 쿵쿵거리더라"며 "아기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

요. 유모차를 놓친 할머니도 엄청나게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서로 대화할 상황도 없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아이의 아빠에게 받은 장문의 문자도 공개했다. 유모차 속 아이의 아빠는 이 씨에게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고 계셨는데 경황이 없어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다"며 "시간 괜찮으실 때 얼굴 뵙고 꼭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제로 아이 아빠와 식사를 하고 사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유모차를 실수로 놓친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니 약성 맛글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이 씨는 동대문경찰서로부터 '선한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이 씨의 선행은 한 누리꾼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면서 화제를 모았다. CJ대한통운과 서울지방경찰청은 '민경협력 공동체 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에 공로가 있는 택배기사들에게 '포돌이 안심택배' 인증을 하기로 했다.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기로스승 대관 전수, 열반 1주기 추선불사 봉행 33년간 교화스승으로서 송고한 삶을 살아...

불교총지종 총본산 총지사서에서 6월 30일 기로스승 대관 전수 열반 1주기 추선불사를 봉행하였다. 통리원 총무부장 우인정사의 집공으로 진행되었다. 대관 전수는 총기 13년 2월 17일 총지종에 입교하여 12년간 흥국사 주교로 일선교화스승의 삶을 살았다. 총기 46년 6월 열반 하실 때까지 33년

간 총지종 스승으로서의 한 생을 마무리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뼈와 터럭과 살은 다 땅에 돌아가고, 피와 땀과 진액은 다 물에 돌아가고, 따뜻한 기운은 불에 돌아가고, 육식은 흩어지고 영식이 홀로 들어와서 이제 이 보살대중과 함께 강도 인연을 짓고 천도를 받아 왕생할 것이다."

추선불사 내용과 같이 대관 전수의 교화스승으로서의 송고한 삶이 이제 육신을 떠나 영원한 열반에 드시기를 추선하며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포함한 전국 사원 스승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기로스승 대관 전수의 열반 1주기 추선불사가 봉행되었다. 총지사=백귀민

불교총지종 찬불가 3집 녹음 맹연습 부산 만다라 합창단, 찬불가 녹음 연습에 열성과 열의로 더위도 잊은 모습



불교총지종 부산 경남교구 만다라 합창단(단장 이상록)은 찬불가 3집 녹음

을 위해 열심히 곡연습 중에 있다. 이번 찬불가 3집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피아노로 구성된 챔버 오케스트라로 녹음할 예정이다. 7월부터 녹음할 예정에 있으며 9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만다라 합창단 이상록 단장은, "저희 합창단 단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찬불가 녹음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박운규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들의 열성과 열의로 더위도 잊은 채 연습 중에 있습니다."며 근황을 전했다. 정각사=한미옥

Q&A 문고 답하기. Q 참회를 하고 싶을 때 참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참회를 하고 싶다는게 참회불공 말인지. 잘못에 대한 참회를 하고 싶다는 것인지? 1. 참회불공은 현 총지종 불공법 자체가 참회불공입니다.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대성사님 당시 참회원으로 불리워졌다는 사실을 상기해본다면 쉬이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회 서원사항과 불공방법, 회향은 사원 전수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 잘못에 관한 참회라면 - 우선 눈물로 참회하는 마음이 필수입니다. 자비심이라 하죠. 대 자비심을 발하여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몸으로 지은 잘못을 마음으로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옛 분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들 하시죠. 그리고 나서 참회게송이나 참회진언을 사용합니다. 참회 불공시 자비심을 일으키고 진정한 참회의 마음으로 불공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일정사

수계사 김수광 각자 경주시 시의원 당선. 김 당선자는 61년 생으로 현곡초, 문화중, 경주상고를 졸업하고 경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현재는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에 행정학과 석사과정 중이다. 경력으로는 전 경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회 회장, 천년사랑 봉사회 회장, 경북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나정포럼경제도시분과 위원장, 경주시 태권도협회 부회장, 경주 교육공동체 시민모임 이사로 활동중이다. 단음사=권순복. 어울림 소식. 1. 7월 25일 오후 2시 벽룡사, 임신생 조화자 영식, 49재 봉행 예정(열반일: 6월 7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7월 10일 12시 화음사, 김정숙 보살 시어머니(계유생 김순이) 49재 봉행 예정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총지 스케치. 비핵화 가즈아! 김홍균 작가

'충지정보'의 새로운 이름을 찾습니다. 생활불교의 미래 지향적인 종단 이념을 잘 담아 충지종 언론 매체로서 소통과 교화 목적에 잘 부합되는 이름을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 총기47년(2018년) 7월 31일까지. 접수: 불교총지종 홍보실 02-552-1080 / pantha@naver.com.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Tel. 02. 552. 1080~3 www.chongji.or.kr



절기 이야기



소서

삼일사주교남혜정사

서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와 옛 농사짓던 조상님들께서는 일손이 무척 바빠 시집은 새 색시도 일손을 거들어야 한다는 뜻이며, 뒤의 속담은, 소서 때는 모내기를 끝낸 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김을 매거나 피사리를 해 주며, 논둑과 밭두렁의 풀을 베어 퇴비를 장만하기도 하고, 가을 보리를 베어낸 자리에는 콩이나 조·팥을 심어 이모작을 하는 시기로 지나가는 행인도 달려들어 일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소서는 농사일로 아주 바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서에는 '작은 더위'라 불린다. 하지와 대서 사이에 들며, 음력 6월, 양력 7월 7일이나 8일까지가 된다. 태양이 황경 105°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이 시기에는 장마전선이 우리 나라에 오래 자리잡아 습도가 높아지고, 장마철을 이루는 수가 많으며, 이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

소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므로 온갖 과일과 소채가 풍성해지고 밀과 보리도 멎게 된다. 특히, 음력 5월 단오를 전후하여 시집식으로 즐기는 밀가루음식은 이맘 때 가장 맛이 나며, 소채류로는 호박, 생선류는 민어가 제철이다. 민어는 조림·구이·찜이 다 되지만 이 무렵에는 애호박을 넣어 끓인다.

예전에는 한 절기 앞선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끝내고, 모를 낸 20일 뒤 소서 때는 논매기를 했으나, 지금은 제초제를 뿌리고 논김은 매지 않는다. 팔·콩·조들도 가을보리를 한 가지 무렵에 심고, 소서 무렵에 김을 매준다. 또, 이때 퇴비장만과 논두렁의 잡초깎기도 한다.

소서에는 "소서때는 새각씨도 모 심어라", "소서때는 지나가는 행인도 달려든다"는 속담이 있다. 앞의 속담은, 소

서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절기로, 과거에 음력 6월 15일 전후로 밀을 수확했기 때문에 이때 밀가루 음식인 칼국수, 수제비 등을 별미로 먹었던 것이다. 밀가루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

이 있어 이 같은 여름철 더위를 쫓는데도 좋다. 소서에 먹은 만한 밀가루 음식으로는 국수가 대표적이는데, 특히 국수는 재료에 따라 콩국수, 비빔국수 등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할 수 있어 여름철 별미로 좋다.

민어는 조림, 구이, 찜이 다 되지만 이 무렵에는 애호박을 넣어 끓인다. 특히, 민어고추장국과 회이 맛이 두드러진다. 애호박에서 절로 단물이 나오면 어는 한창 기름이 오를 때여서 그 국은 고추장 특유의 매운 맛이면서도 단물이 흥건히 괴어 맵고 달콤한 맛이 첫 여름의 입맛을 상큼하게 돋아준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는 적당한 운동과 함께 균형 있는 영양섭취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계탕 등 보양식도 좋지만 이보다는 콩국수, 메밀국수와 같은 시원한 국수 류와 수박, 참외 같은 제철 과일이 좋다. 콩국수에 들어가는 콩은 고단백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여 무기력해지는 여름철에 좋으며, 메밀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등이 풍부하고 전분의 입자가 미세하여 소화가 잘 되므로 메밀국수는 여름철의 소화촉진 제로도 좋은 역할을 한다. 제철 과일과 야채도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을 공급하여 여름을 이기게 한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신정택 교수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는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다.

을 보여준다. 2016년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행복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자살충동률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엔의 행복지수 연구는 2012년부터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건강, 돈, 안전 등의 경제적 항목과 정서적 항목으로 나라별 행복지수를 평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위스, 5위 핀란드, 6위 네덜란드, 7위 캐나다이며, 한국은 56위로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행복 수준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증가함에도 행복수준이 감소하는 현상을 이스터린 역설이라고 한다. 이는 소득과 같은 물질적 요인 외에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간관계, 자아존중감, 종교, 봉사, 건강, 낙관성 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 자신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네덜란드 속담

남미 어느 한적한 바닷가의 이야기입니다. 도실에서 온 부자가 호화 요트를 정박하고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마침 야자수 그늘 아래 하늘을 보고 드러누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어부를 발견했다. 그래서 한심하다는 듯이 물었다. "어보시오 이 금쪽같은 시간에 왜 고기잡이를 안 하시요?" "오늘 묶은 넝마잡이 왔습니다." "시간 날 때 더 잡아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세요?" "돈을 더 벌여 큰 배와 그물을 사고, 더 깊은 데 가서 더 많이 잡고, 그러다 보면 나처럼 부자가 되지 않겠소?"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되면 뭘 합니까?" "아, 그렇게 되면 편안하고 한가롭게 삶을 즐길 수 있겠소." 부자의 말에 어부가 답했다.

그럼, 나의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아래 4문항을 통해 자신의 행복 지수를 산출해보자.

<아래 표 참조>

1번과 2번 문항은 인생관, 적응력, 신중성 등 개인적 특성에 관한 것이며, 3번 문항은 건강, 돈, 안전, 인간관계 등 생존 조건에 관한 것이며, 4번 문항은 야망, 자존심, 인생의 목적 등 고차원적인 상태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평균 행복 지수를 살펴보면 10대 '71점', 20대 '61점', 30대 '63점', 40대 '65점', 50대 '66점', 60대 '65점', 70대 '51점'이다.

행복지수 상위권 나라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반면, 대한민국 노인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노년으로 갈수록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행복한 삶의 시작점 :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

행복한 삶의 시작점은 '나의 작은 변화' 부터이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 가족 탓, 이웃 탓, 직장 탓, 학교 탓, 나라 탓 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은 내가 가진 장점을 개발하고,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용서하는 마음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은 행복에 있어서 돈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라도 물질적 요인을 너무 중요시하여 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변화하면 세상은 내가 바라 는 대로 보일 것이며 그것이 행복과 성공의 시작이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잖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최근에 발표된 통계적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나라 지난 40년간 소득 수준이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 12

梅蘭菊竹



덕광(실보사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의 부문 수상

蘭 따라 그리기 II

1	2	완성
3	4	

나의 행복 지수 평가하기
총 문항은 4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부터 '매우 그렇다' 10점까지 0~10점 사이의 점수를 하나 주는 방식이다.
1. 나는 사교적이고 원기왕성하며 변화에 유연한 편이다(0~10점)
2. 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며 스스로 잘 통제한다(0~10점)
3. 나는 건강, 돈, 안전, 자유 등 나의 조건에 만족한다(0~10점)
4.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내가 세운 기대치를 달성하고 있다(0점~10점)
행복지수 산출 방법 (1번점수)+(2번점수)+(3번점수 곱하기 5)+(4번점수 곱하기 3) = 나의 행복 점수.



S-OIL 현곡주유소

착한가격! 좋은품질! 정품정량!

대표 최병철(수계사 교도)

주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58
 전화 : 054-745-5804, 054-745-3083
 핸드폰 : 010-2877-6137



종단의 백년대계는 교육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위원 위촉 및 향후 교육방안 논의



▲ 시무교육(2018.6.18)

지난 6월 4일 중앙교육원(교육원장 화령 정사) 주관으로 제4회 교육위원회가 8명의 교육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장원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법공 종령님의 지시사항이며 지난 3월 심화교육에 따른 설문 조사에 의하여 향후 종단 교육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하여 개최된 회의였다. 회의에서는 제2기 교육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비롯하여 기존의 교육에 대한 점검과 금년도 시무교육, 스승 심화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지난 5월말 법공 종령 주관으로 인선 통리원장, 화령 교육원장, 법경 밀교연 구소 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종단 발전

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가장 먼저 치중해야 할 종단 역점 사업으로서 스승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대두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 강화를 위하여 간헐적 교육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스승 위예에 대한 교육과 능력 향상이 거론되었다. 아울러 종단의 종지와 종단 발간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교육위원회에서는 우선 금년도 시무교육과 스승 심화 교육에 대한 방침 수립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무교육은 금년 말까지 법공 종령 예하의 스승상 확립에 대한 직접 교육에 중점을 두고 불교 일반과 소의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총지종 교리, 의식 집전 및 사원 실무, 포교론, 교화 경험담을 교육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제3기 스승심화 교육에 대한 금년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2차에 걸친 기존의 스승 심화 교육에 대한 반성과 기본기 완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한 것

이다. 기존 심화 교육은 참여도를 높이고 자체 강사를 육성하기 위한 양 방향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첫째, 한 과목당 강의 시간이 너무 적었으며 강사의 준비 상태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며, 둘째, 강사의 강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가 없었으며, 셋째, 교재의 불충분과 수강자의 학구열 부족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반성하고 향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던 바,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기존의 불교 전반에 대한 교육은 수강 시간이 짧은 데 비하여 범위가 너무 넓어 교육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에 따라 소수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유도했으며, 둘째, 일반 불교교리와 병행하여 종단 발간 교재 위주로 교육하기로 했다. 이는 불교 일반으로부터 종단의 종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떠나 종단의 교리체계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방식을 채택한 것

으로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셋째, 자세한 설문 형식을 통하여 수강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요구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강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강사의 자질도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넷째, 자체 강사의 육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원장이 강의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도록 했다. 다섯째,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수강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포트 형식이든 발표 형식이든 필기시험 형식이든 어떠한 형태라도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출석과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 등급과 여타 인사이드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강의 보다는 토론과 발표를 통한 쌍방향의 강의를 통하여 불교적 사고를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방법론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화령 교육원장은 “우리 종단의 교육 시스템은 아직도 불충분한 상태로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 원인은 첫째, 상하반기 49일 불공을 비롯한 각종 불사와 이와 연관된 일선 교화에 할애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며, 준비된 강사가 그다지 많지 않아 한정된 수의 강사로 운영되다 보니 신선감을 불러 일으키기 어려워 교육효과가 저하되는 것도 한 몫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수강자의 학구열 내지는 향학열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소정의 교육효과를 거두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의 노력과 교육에 임하는 수강자들의 열정이 합쳐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제3기 스승심화교육은 7월 18, 19일 양일간에 걸쳐 시행되며 금년 11월에 종결될 예정이다.

중앙교육원

6.12 북미정상회담 평화 향한 첫걸음

통리원장 인선 정사, 공동합의문 채택 환영 뜻 밝혀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 결과 양측 합의문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서명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선 정사는 “총지중 종도들과 함께

한반도에 다시는 살육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발판을 마련한 북미 합의사항을 존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은 1500년대 이후 단일 전쟁으로는 7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낸 참담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로부터 68년간 휴전이라는 위험한 전장 지역으로 존재해 온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이란 북미 합의문

서명은 항구적 평화를 맞이하려는 판문점 합의에 순풍의 뜻을 담았다 할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향을 등져야 했던 수 많은 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을 애통해하며 합의된 ‘전사자 유해 송환’을 시작으로 조속한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통해 실랑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평화협정과 경제협력으로 처

잡한 빈곤이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유린되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신장, 문화지원,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순조롭게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북미 공동합의문 서명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살상 무기폐기를 통해 남북의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기를 서원하며 불교총지중은 종도들과 함께 조국 평화통일, 부국강병 국대



▲ 6.12 북미정상회담(사진제공-연합뉴스)

민안을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발원하고 또 발원합니다.”며 싱가포르 선언은 평화로 가는 위대한 선언이고, 두 정상 합의의 마음 깊이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가 하루빨리 구축되길 염원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조/법/어

일체 지혜 모든 선업 정진으로 일어나며 세간 생활 모든 서원 정진으로 성취된다.

지/면/안/내

3면 원봉 정사 입적/총지중보 제호(題號) 공모 6면 단우사 탐방 9면 통신문소식 12면 몽골 불교교류사업 체험기

부산·경남/대구·경북교구 합동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총기 47년(2018년) 7월 16일(월요일) 오전 11시 /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행사내용

- 1부 : 호국안민기원대법회
- 2부 : 공연

장소

- 주소 :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167
- 전화 : 061-755-5522

몽골 불교 문화 체험기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불기 2562 (2018)년 한국전통문화 몽골불교 교류 사업'을 6월 18일~22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봉행되었다. 교류 사업은 한국불교계와 같이 해외 불교계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동활동으로 몽골불교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38명 일행은 몽골 대표 사원인 간단사를 방문하여 몽골불교와 문화를 이해할 시간을 가지고 테를지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몽골의 대자연 문화를 탐방한다. 이후 유목민 가옥과 전통차 수레차를 시음하고 몽골의 슈바이처이며 독립운동가인 한국인 의사 이태준 선생의 기념공원을 둘러보고 4일 차에 조계종 복지재단 몽골드립센터와 지구



▲ 간단사 법회



▲ 아리아발 사원 내 본존불 초공양



▲ 간단사예불



▲ 간단사 단체사진

촌 공생회 청소년센터를 방문하여 연등만들기, 단주만들기, 에코백 그리기, 문화재 접기 등의 문화체험 시간을 함께 가지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일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몽골항공 비행기로 3시간 40분 후 붉은 영웅이란 뜻의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울란바토르는 1924년 공식적인 수도가 되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이런 하늘을 보고 맑고 쾌청한 하늘이라 할 것이다. 약간 귀가 멍 하는 느낌은 털었지만 20도 정도도 활동하기에 좋은 기온이다.

보통 몽골 하면 바로 이 사람 칭기즈 칸(테무친, 13세기)을 기억할 것이다. 칭기즈칸은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타타르족을 무찌른 뒤,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만 연안 지역 및 카프카스 남부를 차례로 정복하여 몽골제국을 만들었다. 1234년 칭기즈칸의 후계자인 오

고타이(1229-41)는 중국의 금나라를 정복했고 손자인 쿠빌라이 칸(1259-94)은 중국의 원제국(1279-1368)을 수립하여 천하를 호령하던 민족이다.

우리 일행은 공항을 벗어나 몽골 중심 사원인 간단사를 향해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버스 대부분은 현대, 기아 버스가 주류를 이루었고 승용차는 도요타 차종이 많이 보인다.

몽골이라 대 초원과 탁 트인 길을 상상했는데 실상은 아주 달랐다. 고속도로는 포장지 좋지 않은 2차선 도로였으며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서울의 출근길을 보는 것 같다. 특이한 점은 일반 국도로 포장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4차선이다.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대도 '뺑뺑' 경적 하나 없이 요리조리 잘도 운행한다.

몽골 위치

몽골(Mongolia)은 중앙아시아 북부

고원지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울란바토르(Ulaanbaator)이다.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몽골은 평균 고도가 해발 1,585m에 이르는 고지대 국가이며 강원도 오대산 최고봉인 비로봉의 높이(1,563m)보다 11m가 더 높으며, 고지대 초원, 준사막,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집권 공화제로 국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남한 면적의 16.5배에 해당하는 1,564,116.0km²의 국토를 소유하고 있다. 맑은 날이 많고 강수량이 적으며, 기온의 일교차 및 연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며 몽골족(95%), 투르크계(5%)의 인구 비율을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인구는 3,113,235명에 라마 불교(53%), 그리스도교, 샤머니즘의 종교를 믿고 있다. 시간은 한국보다 1시간 느리다.

시차 적응보다 백야에 적응이 되지 않아 정말 힘들었다. 새벽 3시부터 해가 뜨기 시작하여 밤 11시에 해가 지기 시작하였다. 무려 20시간 이상을 햇빛 속에서 생활해야 했고 밤에도 주변이 흰히 밝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도 호텔 숙소는 비교적 깨끗하고 좋았다. TV에서는 한국 드라마, 스포츠 중계, 음악방송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 한류 열풍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몽골 불교

종교적 억압을 이겨낸 몽골의 유일한 중심 사원 간단사원-간단사

17세기에 설립된 간단사는 라마 불교사원으로 정식명칭은 '간등테친큰 히드'로 완전한 즐거움을 주는 위대한 사원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기도원이기도 한 간단사는 몽골 라마 불교의 총본산이며 무려 7년간의 긴 시간 동안 제작된 27m에 이르는 금불 입상이 우뚝 솟아 있는 곳이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불상이라 한다. 사원 내에 작은 사원들과 어린 승가학교 4곳과 승가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공

부하는 학생과 약 200여 명의 라마승이 거주하는 곳으로 수도원의 역할도 하고 있다.

19세기 초 울란바토르에는 약 100여 개의 티베트 불교사원과 수도원이 있었다. 소련 스탈린의 침략으로 대부분 사원과 수도원이 파괴되고 말았다. 이때 간단사는 공산주의자들이 외국인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용으로 남겨두었던 것으로 1930년에 있었던 공산정권의 종교억압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사원이 되었다. 지금은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큰 라마 불교의 중심 사원으로 불려리 중 하나다.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간단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지방사원이나 사찰의 지도자, 함바라마(주지), 부 함바라마(부주지), 초르치 라마 등으로 활동하며 일부는 강의와 연구소에서 근무한다. 해외 유학을 가기도 한다. 또한, 서울 동대문에 간단사 한국지원 서울포교당(주지 바트보양 스님)을 개설하여 11번째 운영하고 있다.

몽골불교의 현황

“현대몽골불교는 기복신앙(祈福信仰)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건강과 장수, 부(富)에 대한 기원은 시대와 인종, 지역을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인 소망일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몽골인에게 재복(財福)에 대한 열망은 특히 높아지고 있다. 사업의 번창과 기원, 태일, 크고 작은 고민 등을 상담하기 위해 사원의 승려에게 찾아가 상담하는 모습은 몽골 어느 사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사원의 경내에 상담을 위한 승려가 낮에 대부분 상주하며, 상담하는 신도를 위해 그 자리에서 간단한 점복(占卜)과 염불, 기도해준다.

큰 사원의 경우 신도는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도를 직접 골라 해당 기도비를 계산원에게 제출하고 이름을 입력하면 그다음 날 아침에 승려가 독경과 기도를 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00여 가지의 기도 중 본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종류에

제한 없이 고를 수 있으며 기도비를 지불하면 자동으로 계산대에서 영수증이 발급된다.

몽골 사원에서는 초 공양 대신 기름 등잔에 솜으로 심지를 말아 세우고 등잔 안에 소나 양 기름을 굳힌 것을 넣어 놓아 등불 공양을 올린다. 작은 등잔 여러 개를 놓기도 하고 큰 등잔 하나를 오래 피우기도 하면서 기도자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간절히 염원하는 모습은 몽골 사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특히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대한 수호(守護)를 비는 기도가 별도로 전하는데 이는 몽골의 광활한 초원에서 형성된 유목문화의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모습의 일례다. 현대 몽골 사원의 모습은 지나치게 상업화되었다는 지적을 받는 동시에 여전히 몽골인들의 불심을 모으는 중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단국대 몽골학과 김나경 강사는 「몽골불교의 전통과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혔다.



▲ 간단사 등신불



▲ 간단사 본존불



▲ 지구촌 공생회 청소년 센터 방문(울란바토르)



▲ 한몽한국문화체험-에코백만들기



▲ 한몽한국문화체험-연등만들기